



圖書館은

現代生活의 指標를 提示

◆ 崔濟州道教育監 學校圖書館大會서 力說 ◆

오늘 第5回 全國 學校圖書館大會를 저희 道에서 開催하게 된 것을 本道民과 더불어 기뻐함과 同時에 主催側에 對해서 謝意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意義 깊은 行事에서 本人이 祝辭까지 하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參席하신 여러 先生님은 거의가 各道에서 學生教育에 手酷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教育同志라는 點에서 初面갈지 않게 親近감이 들며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本道는 本土와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고 해서 여러 先生님은 이번 本道에 오신 것이 아마 거의가 처음이신 줄 아는데 不便한 交通을 무릅쓰고 이렇게 저희들 고향을 찾아 주신데 對해서 衷心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圖書館의 重大한 使命은 再言할 必要조차 없겠습니다. 學校가 學生教育의 專門機關임에 比하여 圖書館은 모든 社會人의 知識과 思想生活의 中心을 이루는 一般社會教化의 文化殿堂으로서 우리의 生活를 擴大하고 現代生活의 指標인 無知의 追放으로 새로운 時代와 社會를 形成하여 가는데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學校에서 學生에게 教育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있어서 教室教育만으로는 滿足한 것이 못될 것임은 너무나 分明합니다. 여기에 學校圖書館이 맡고 있는 使命, 다시 말해서 學生으로 하여금 必要한 圖書를 自由롭고 容易하게 閱覽시킴으로써 스스로 知識을 習得하고 人格을 修養하는데 얼마나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가는 疑心할 餘地가 없습니다.

圖書館의 必要性에 對해서 저는 美國의 어느 新聞論說을 紹介한 글이 생각납니다. 거기에 보면 『萬若 西歐化文가 뉴욕市內에 단 하나의 建物만을 남기고 다른 모든 것을 地中으로 물어버리게 된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고 自問한 다음 『그것은 뉴욕市 四二番街의 뉴욕公共圖書館임은 選擇의 餘地가 없는 것』이라고 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圖書館이 얼마나 重要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습니다.

不幸히도 本道 各種 圖書館의 現況은 매우 貧弱함을 免치 못하고 있습니다. 學校圖書館에 있어서는 近年에 와서 매우 關心이 높아가고 있어 不遠한 將來에 많은 發展이 이루어 질 것을 期待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圖書館大會가 本道에서 開催되는 이 機會를 契機로 해서 本道 各種 圖書館의 成長發展에 커다란 活力素가 되어 주기를 眞心으로 願하여 마지 않습니다.

여러 先生님께서 이번 오신 機會에 부디 많은 策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人 여러분이야말로 文化의 編輯者로서 崇高한 奉仕者이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依해서 이나라 社會가 보다 開化되고 祖國이 하루 速히 近代化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先生님이 本道에 머물러시는 동안 아무 쪼록 不便이 덜 하시고 本大會가 盛況裡에 마쳐지기를 바라며 同時에 韓國圖書館協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하면서 이만 祝辭에 가름합니다.

1966年 5月 18日

濟州道教育委員會 教育監 崔 貞 淑